

# *There* 구문의 의미 · 기능적 특성

김연승

## 1. 머리말

영어에는 *there* 가 주어로 나타나는 일련의 문장들이 있다.

- (1) a. There is a wolf at the door.  
b. There are polar bears in Norway.  
c. There has been a student arrested by the police.  
d. There will be a disaster tonight.

이와 같이 *there*가 주어로 쓰이는 문장을 *there* 구문이라 하고 이 구문의 *there*를 ‘존재의 *there* (existential *there*)’라 하여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장소의 *there* (locative *there*)’와 구분한다. *there*구문은 전통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통사적인 면에서는, 변형 문법 초기에서부터 Chomsky (1981)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there*가 문장의 생성과정중에 빈 자리를 채워주기 위한 요소로서 삽입된다는 *There*-insertion Analysis (TIA)가 주류를 이뤄왔다. 이 분석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몇몇 학자들<sup>1)</sup>은 *there*의 의미 · 기능적 역할을 인정하여 *there*를 D-구조(D-structure)에서부터 설정하는 분석 (*There-in-D-structure Analysis: TDA*)을 제시하였으나 TIA만큼 짜임새있고 설득력있는 이론이 되지 못했다. 특히 Lyons (1968), Bolinger (1977) 등은 *there*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there* 구문의 생성을 통사적으로 밝히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

의미적인 면에서도 *there* 구문은 여러 제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제약의 일관된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문장내의 관계(sentence-internal relation)만 살펴보았고 기껏해야 [-definite]라는 의미자질로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에 대한 제약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맥락(context)을 고려해야 하는 화용론적인 측면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sup>2)</sup>

*there* 구문과 연관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 중 본 논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주로 살펴보려 한다.

- 1) 장소의 *there*와 존재의 *there*의 관계는 무엇인가?<sup>3)</sup>

1) Jenkins (1972), Williams (1984), Kim (1985)과 박승윤(1986) 참조.

2)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설명된다.

3) 이 문제와 관련하여 Kimball (1973)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why *there* is inserted and not, say, *chop suey*; or whether the *there* that is inserted is the same as the deictic *there*, or that what relation the two bear to each other.”

- 2) 왜 한정명사구의 사용이 대부분의 *there* 구문에서 허용되지 않는가?<sup>4)</sup>
- 3) 왜 전칭양화사를 포함하는 명사구(universal quantifier expressions)의 사용이 불가능한가?
- 4) 왜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들은 그 의미가 ‘존재’나 ‘존재의 시작’인가?<sup>5)</sup>

이와 같은 의문점들 이외에도 (2)에서 보듯이 Milsark (1977), Stowell (1978) 등이 지적한 명사구의 술어(predicate)와 연관된 문제도 살펴 볼 것이다.

- (2) a. There was a man sick.  
b. \*There was a man tall.

다시 말해, 본 논문은 *there* 구문의 의미·기능적 특성을 살펴 보고, 위에 제기된 여러 의문점들을 모두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을 찾아보겠으며, 그리하여 *there* 구문의 통사적 분석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 2. ‘존재의 *there*’의 의미·기능적 특성

TIA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there*의 어떠한 의미·기능적 특성도 인정하지 않고 *there*는 단지 원래 주어자리에 있던 명사구가 *be*동사 뒤로 이동됨에 따라 생긴 공백(gap)을 매워 통사상 주어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문장을 살펴 보자.

- (3) a. A wolf is at the door.  
b. There is a wolf at the door. (= (1)a.)

(3a)에서 원래의 주어인 *a wolf*가 동사 뒤로 이동됨에 따라 *there*가 주어자리로 삽입된다. 이러한 TIA의 밑바닥에는 (3a)와 (3b) 두 문장이 서로 의미가 같고 *there*는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은 공백메커너(gap filler)일 뿐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실제로 Breivik(1981)은 자신이 행한 실험에서 대부분의 모국어화자가, *there*가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Quirk, et al. (1985)도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there*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 (4) a. There's a screwdriver here.  
b. \*There's the screwdriver here.

‘screwdriver’의 존재장소인 *here*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음에도 (4a)가 적절한 문장이 되는 것은 *there*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며, 만약 존재의 *there*가 장소의 *there*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here*와 의미적으로 상충이 일어나므로 (4b)에서 보는 것처럼 ((4b)의 *there*는 장소의 *there*인 경우이다.) 적절하지 못한 문장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TIA를 주장하면서도 *there*의 기능적 특성을 인정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

4) 3절에서 보듯이 구체적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한정명사구의 사용이 가능할 때도 있다.

5) Quirk, et al. (1985)은 이 동사들을 ‘verbs of motion’ (*arrive, enter, pass, come*); ‘verbs of inception’ (*emerge, spring up*); ‘verbs of stance’ (*live, remain, stand*) 등으로 하위분류하나 이들은 모두 ‘존재’와 연관된 동사들이다.

인물인 Breivik (1981)의 견해를 살펴보자. Breivik은 존재의 *there*가 공시·통지적으로 장소의 *there*로부터 도출된다는 Lyons (1967, 1968)의 가설을 반박하면서 존재의 *there*는 장소의 *there*와 유사한 어떤 의미도 갖고 있지 않고 일종의 화용론적 정보인 신호정보(signal information)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there*의 신호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5) *There<sub>1</sub>*<sup>6)</sup> functions as a signal to the addressee that he must be prepared to direct his attention toward an item of new information.

그에 의하면 *there*의 이러한 신호정보는 *there*의 원래 의미가 아니고 *There-insertion*에 의해 무의미소인 *there*가 주어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갖게 되는 기능적 정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there*의 화용론적 기능으로서 지적하는 영상효과(visual impact)를 살펴 보면 그의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6a)와 같은 문장은 모국어화자에게 다소 이상하고 어색한 것으로 여겨지고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은 (6b)와 같다는 것이다.

- (6) a. An account book is on the table.  
 b. There is an account book on the table.

그러나 (7)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6a)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고 한다.

- (7) We are looking at an extraordinary picture painted by X. A middle-aged man and three boys are seated on chairs or stools at a spindly, square table. *An account book is on the table.*

(7)에서는 앞선 문장들이 ‘account book’에 대한 구체적인 물리적 배경(detailed physical setting)을 설정해 주므로 독자는 ‘table’과 ‘account book’이 놓여 있는 작고 제한된 공간을 영상화(visualize)하며, 구체적 영상효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6a)와 같은 문장도 적절하다고 한다. 그러나 co-text가 영상효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there*의 삽입이 강제적인데, 이는 *there*가 영상효과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영상효과가 없기 때문에 *there*의 삽입이 강제적이다.

- (8) a. The first floor houses the real heart of the store—the hi-fi departments—but there is much else here also.  
 b. There was little great football in last night's game.

Breivik의 주장대로 *there*의 기능적 역할이 영상효과가 없는 문장에 영상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왜 *there*가 무의미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능을 갖는지 설명할 수 없으며, 더구나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왜 *there*만이 삽입되는지도 설명 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there*의 기능적 역할인 영상효과란 문맥상 결정되는 화용론적 요소인 관계로 불분명할 때가 많으며, 이 불분명한 요소가 명확한 통사규칙인 *There-*

6) Breivik (1981)은 ‘존재의 *there*’를 *there<sub>1</sub>*로 ‘장소의 *there*’를 *there<sub>2</sub>*로 표기한다.

*insertion*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there*가 단순히 쭉여 자리에 삽입됨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갖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there*의 의미적 자질을 인정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there*의 기능으로서 제시되는 신호정보는 존재의 *there*뿐만 아니라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는 장소의 *there*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들로써 알 수 있다.

- (9) a. Here it is, just where I left it.
- b. There she is, by the phone box.
- c. There they were, cold and miserable.

(9a-c)에서 문장 서두에 있는 *here*, *t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신호정보가 (5)에서 규정된 대로 상대방의 시선을 자신이 도입하는 개체쪽으로 끄는 것이라면, 이러한 부사들은 분명히 신호정보를 가지고 있고 신호정보란 존재의 *there*만의 특성이 아니고 오히려 문장 서두의 요소들(즉, theme)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7)</sup> 결국 존재의 *there*가 갖고 있는 기능적 정보를 인정하고 이를 화용론적으로 설명하는 Breivik의 시도는 *there*의 특성을 밝혀주고, 3절에서 언급될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의 특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나 *there*의 의미자질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다.

*there*의 의미를 인정하려는 시도는 Lyons (1967, 1968), Bolinger (1977) 등에 의해 제시되는데 Bolinger의 다음 예를 살펴보자.

- (10) a. \*As I recall,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 b. As I recall, across the street there's a grocery.
- c. As you can see,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10a)가 적절하지 못한 이유로서, Bolinger는 어떤 개체<sup>8)</sup>의 존재장소가 눈앞에 전개되는 구체적인 곳이 아닐 경우에는 *there*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Breivik이 말하는 *there*의 영상효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there*가 새로이 도입되는 어떤 개체의 존재무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어떤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장소(location)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한 개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그것의 존재가 구현되는 장소가 (그것이 비록 사실세계(real world)의 한 부분이든, 의식세계(conscious world)의 한 부분이든) 전제되는 것이고 그 장소의 의미가 바로 *there*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존재의 *there*란 장소의 *there*의 원래 의미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내포하고 원래 의미로부터 파

7) Brown and Yule (1983)에 의하면 문장 서두의 요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갖는다고 한다.

(i) connecting back and linking in to the previous discourse, maintaining a coherent point of view

(ii) serving as a point of departur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discourse

*there*의 기능인 신호정보는 *there*만이 가지는 독특한 것이라기 보다는 문장 서두의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위의 기능 중 (ii)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8) 본 논문에서 '개체(entity)'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실체(object)나 사건(event)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생되었다고 하겠다. 결국 *there*는 ‘담화자의 의식세계의 한 부분’<sup>9)</sup>으로서 어떤 개체의 존재 무대로 재해석될 수 있다. *there*는 어떤 개체의 존재장소를 의미하나 구체적·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담화자의 의식세계의 한 부분을 가리키므로 (4a)와 같은 문장에서도 의미의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there* 구문이란 어떤 개체의 존재가 담화자의 의식 세계 속에 상정되고, 대부분의 경우 그 개체의 물리적 실제 존재장소가 뒤따라 나오는 구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Breivik이 지적하는 *there*의 영상효과도 결국 *there*의 이러한 의미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there*를 단순히 주어자리를 채워주는 의미없는 공백메모자로 보았던 것은 *there* 구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 존재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there*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sup>10)</sup>

*there*가 ‘의식세계의 한 부분’을 가리키므로 *there*는 *there* 구문에서의 명사구가 지칭하는 개체의 존재무대가 된다는 필자의 주장은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에 대한 제약 및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be* 동사 이외의 다른 동사들에 대한 제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에서 다를 것이다.

*there*가 ‘의식세계의 한 부분’을 나타낸다는 주장은 *there*가 역사적으로 장소의 *there*로부터 도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또 사실 그렇다면 두 *there*의 의미적 연관성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Breivik (1981)은 역사적 연구를 통해 존재의 *there*와 장소의 *there*는 고대영어에도 이미 따로 따로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존재의 *there*가 장소의 *there*로부터 발전했다는 가정을 반박하는 듯하고 두 요소의 의미적 상관성을 부정하는 증거일 수도 있으나 Breivik 자신이 추측하듯이 고대영어 이전에 두 요소의 분화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sup>11)</sup> 그러나 역사적으로, 존재의 *there*가 장소의

9) 박승윤(1986)은 이것을 ‘담화세계’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화자/작자와 청자/독자가 이야기 할 때 서로 똑같은 담화세계를 각자의 머리 속에 상정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담화를 해석 할 때 청자는 text가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mental representation을 상정하는 데 똑같은 text라 하더라도 mental representation은 사람마다 자신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다를 수 있다. Brown and Yule (1983)은 다음 문장으로 이를 예시한다.

(i) My uncle's coming home from Canada.

즉, 어떤 사람이 (i)을 말했을 경우, 자신의 의식세계에는 ‘아저씨’에 대한 여러 특성들(예를 들면, 책이라고 불리고, 대머리이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등)을 상정할 수 있지만 청자는 자신의 의식세계에 ‘아저씨’가 의미하는 일반적 특성만을 상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text로부터 화자나 청자가 자신의 머리 속에 그리는 mental representation은 다를 수 있다. *there*를 통해 설정되는 의식세계의 한 부분도 청자와 화자에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담화자의 의식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으며, 이는 ‘청자의 의식세계’와 ‘화자의 의식세계’를 따로따로 가리키는 것이다.

10) 이러한 이유로 Kuno (1971)는 *there* 구문의 기저형으로 Locative+V+S 구문을 설정하기까지 했다. 즉 (ia)의 기저형은 (ib)라는 것이다.

(i) a.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b. On the table are two books.

Kuno는 *there*를 동사앞에 위치한 Locative가 주어뒤로 이동됨에 따라 주어자리에 남는 Locative의 pro-form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구체적 존재장소가 언급되지 않는 *there* 구문도 많다는 이유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지 못했다.

11) 이러한 주장은 Lyons (1968:390)가 지적하듯이 유럽의 많은 언어들이 존재구문에서 원래 장소의 부사였던 것을 이용한다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예: 영어 *there* (in *there is/are...*); 불어 *y* (in *il y a*); 이탈리아어 *ci* (in *ci sono*); 독일어 *da* (in *ist da*). Bolinger (1977)도 존

*there*로부터 분화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there*가 ‘의식 세계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는 주장은 두 *there*의 의미적 연관성을 살릴 수 있고 존재구문에서 왜 다른 것이 아닌 *there*만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준다 하겠다.

### 3. *there* 구문의 명사구에 대한 제약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 현상은 전통적으로 한정제약(definiteness restriction)으로 알려져 왔다.

- (11) a. There is a wolf at the door.
- b. \*There is the wolf at the door.
- c. \*There were John and Mary cycling along the creek.
- d. There's the oddest-looking man standing at the front door.
- e. There's the strangest bird in that cage.

(11b-c)가 적절하지 못한 이유는 *the wolf*, *John and Mary*가 한정명사구이기 때문이며, 한정사(definite article)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11d-e)가 적절한 이유는 *the oddest-looking man*, *the strangest bird*가 의미적으로는 한정명사구가 아니기 때문이다.<sup>12)</sup>

그런데 Milsark (1977)에 의하면 한정명사구 이외에도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없는 명사구들이 있는데 다음의 예들을 살펴 보자.

- (12) a. \*There was everyone in the room.
- b. \*There were all viewpoints considered.
- c. \*There is anything John would do for you.

위의 문장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은데, 위에 나타나는 명사구들의 공통성은 모두 전칭양화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하여 Milsark은 한정사를 유일성(uniqueness)의 표지로 보지 않고 universal quantification의 한 가지 표현으로 간주하여 (12)에서 보는 명사구에 대한 제약과 함께 한정제약을 보편제약(universal restriction)으로 일원화하였다. 즉 보편제약이란 전칭양화사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구들은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절에는 반드시 하나의 quantification이 필요한데, Milsark의 주장에 의하면 *there be*는 존재양화표현이므로 뒤에 전칭양화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들이 나타날 경우, 한 절안에 두 개의 quantification이 존재하므로 의미 결합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Milsark은 *there* 구문의 비문법성(ungrammaticality)을 의미 결합의 불가능에 기인하는 의미론적 부적절함(semantic inappropriateness)으로 보고 *There*-insertion 규칙은 제약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왜 *there* 구문에서의 명사구는 모두 일반적 의미(generic reading)를 갖지

재의 *there*와 장소의 *there*를 결국 근본이 같은 것으로 생각했고 Kimball (1973) 또한 존재구문이 역사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주장했다.

12) (11d-e)는 각각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 d'. There's a man with the oddest-looking face standing at the front door.
- e'. There's a bird with the strangest features in that cage.

못하고 특정한 의미(specific reading)만 갖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 (13) a. A castle is built out of bricks.
- b. There is a castle built out of bricks.
- c. There are Koala bears in Australia.
- d.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people hungry.

(13a)는 성(castle)이 벽돌로 지어진다는 성에 관한 일반적 서술이나 (13b)는 벽돌로 지어진 하나의 성이 있다는 특정한 성에 관한 서술이고, (13c-d)의 *Koala bears*, *people* 등도 Koala 곰과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서술로 해석될 수는 없고 몇몇의 Koala 곰과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는 특정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상의 제약은 Milsark이 제시한 보편제약으로 잘 설명된다.

그러나 Milsark의 분석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로 보편제약의 애매성이 있다. 그는 한정성을 나타내는 한정표현들(예를 들면, *the*, demonstratives, pronouns, possessive determiners)을 전칭 양화표현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러한 비약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둘째로 그는 *there*가 단순히 주어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그의 주장이 옳다면, *there*는 무의미소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there be*가 존재양화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be*동사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칭 양화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들이 나타날 경우 *there*가 나타나지 않고 본동사 *be*만 나타나는 문장에서도 의미적 상충이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 (14) a. Everyone is in the room.
- b. Koala bears are in Australia.

(14a)는 전칭 양화사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문장이며, (14b)는 몇몇의 Koala 곰에 관한 특정한 서술로도 해석되나 Koala 곰에 관한 일반적 서술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결국 *there be*를 존재양화표현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절에 두 개의 quantification이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명사구제약을 설명하는 시도는 (14)의 문장들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세째 문제점으로, Milsark은 상황을 고려치 않고 문장내의 관계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한정명사구를 가진 *there* 구문이 적절한 문장이 되는 경우를 고려치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sup>13)</sup>

결국 *there* 구문의 명사구에 대한 제약을 잘 설명하려면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는 화용론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예를 들어, Kimball (1973), Rando and Napoli (1978), Quirk, et al. (1985)과 박승윤(1986))에 의해 암시되거나 주장되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 보자.

13) 물론 Milsark은 주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의 적절함을 들어 특정한 담화맥락에서 한정명사구가 *there* 구문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했으나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What else is there to worry about?  
Well, there's the wolf at the door...

- (15) A : Have we any loose cash in the house?  
 B : Well, there's *the money* in the box over there.
- (16) A : How could we get there?  
 B : Well, there's *the trolley*...
- (17) A : What's worth visiting here?  
 B : There's *the park*, a very nice restaurant, and *the library*.
- (18) A : Is there anything worth seeing around here?  
 B : Well, there's *the Necco factory*.

위의 예들에 대해 Rando and Napoli (1978)는 *there* 구문을 존재를 나타내는 것과 ‘목록 (list)’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분화하고 ‘목록’을 나타내는 *there* 구문만이 한정명사구를 허용한다고 하였다.<sup>14)</sup> 그러나 박승윤(1986)이 지적하듯이 한정명사구가 나타나는 *there* 구문이 꼭 목록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깨움(remind)’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 (19) A : I have just finished my dissertation.  
 Let's go to the theatre!  
 B : Don't relax yet, there is still *the problem* with your dissertation.
- (20) A : Mother, may I watch TV?  
 B : Yes, but there is *the homework* to be finished until tomorrow morning.

(19)~(20)의 *there* 구문은 상대방에게 어떤 개체의 존재를 일깨워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목록’의 의미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there* 구문에서의 여러 의미자질, ‘존재’, ‘목록’, ‘일깨움’을 하나의 일관된 원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박승윤(1986)에 의해 이뤄진다. 그는 이 여러 가지 현상을 모두 ‘존재’로 보고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의미는 ‘존재’의 의미가 담화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 때 ‘존재’는 단순히 사실세계뿐만 아니라 담화세계(discourse world)에서의 존재도 의미한다. 따라서 명사구에 대한 제약은 담화세계에 처음 도입되는 개체를 지칭하는 명사구만이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식으로 서술된다. 즉 (15)~(20)에서 한정명사구가 지칭하는 개체가 화자가 이야기할 때까지는 담화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화자가 그 개체를 담화 속에 끄집어들임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며, 일반적 상황에서 (11)에서와 같이 한정명사구가 보여주는 한정제약은 담화맥락상의 무의미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한정표현들은 이미 청자가 그 표현들이 지칭하는 개체를 알고 있고 그 개체의 존재가 전제된다는 면에서 그러한 개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담화맥락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 9)에서 지적한 이유로 우리는 ‘담화세계’보다는 ‘담화자의 의식세계’란 용어를 사용하겠으며,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는 ‘담화자의 의식세계’, 보다 염밀히 말해 ‘청자의 의식세계’에 처음 도입되는 개체를 지칭하는 것 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갖고 있다.

14) ‘존재’를 나타내는 *there* 구문과 ‘목록’을 나타내는 *there* 구문의 억양 차이에 대해서는 Rando and Napoli (1978) 참조.

결국 *there* 구문에서의 명사구 제약은 언어가 정보(information)의 전달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박승윤(1986)이 지적하듯이 *there* 구문이 어떤 개체의 존재를 주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일 경우,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는 발화시 청자가 존재를 인식못했거나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개체, 즉 ‘신정보자격(new information status)’<sup>15)</sup>을 가진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한정명사구는 그것이 지칭하는 개체의 존재가 이미 청자의 의식세계 속에 전제되므로 그것의 존재는 신정보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담화맥락의 경우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12)에서 보는 보편제약과 (13)에서 가능한 특정적 해석은 모든 개체(예를 들어, 모든 사람, 모든 강아지, 모든 곰 등)의 존재가 일반적으로 담화맥락상 신정보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어떤 개체가 신정보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개체 자체의 특성이 아니고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예문 (16)에서 A는 거기(*there*)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랐으므로 ‘the trolley’는 그의 의식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B가 *the trolley*를 언급할 때 비로소 A의 의식세계 속에서도 ‘the trolley’가 현저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the trolley*는 (16)의 담화맥락상 신정보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정명사구뿐만 아니라 전청양화표현도 신정보자격을 갖게 될 때는 *there* 구문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 (21) A : What is there to be afraid of?  
B : There's everything to be afraid of.
- (22) A : What kind of dog is there at the show?  
B : There's every breed of dog at the show.

결국 *there* 구문은 청자에게 신정보자격을 가진 개체의 도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there*는 그러한 개체의 존재장소로서 의식세계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

이제 Milsark (1977)과 Stowell (1978)이 *there* 구문의 특성으로 들고 있는 다음 예들을 살펴 보자.

- (23) a. There was a man sick.  
b. There are three pigs loose.  
c. \*There was a man tall.  
d. \*There are three pigs stupid.
- (24) a. A man was sick.

15) ‘신정보(new information)’와 ‘구정보(old information)’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Chafe (1976)가 규정하는 의미로 그 용어들을 사용하겠다. Chafe는 구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Given (or old) information is that knowledge which the speaker assumes to b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addressee at the time of the utterance (1976:30).” 결국 신정보는 구정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발화시 청자의 의식 속에 현저한 상태로 남아 있지 않은 지식이다. *I saw your father yesterday*의 경우, *your father*가 신정보자격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청자가 ‘your father’를 자신의 기존배경지식 안에서 알고는 있으나 발화시 그 개체를 의식 속에 현저한 상태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 b. Three pigs are loose.
- c. \*A man was tall.
- d. \*Three pigs are stupid.

Milsark과 Stowell은 (23c-d)의 비문법성은 (24c-d)의 비문법성과 연관된 것으로 이것이야 말로 *there* 구문을 TIA로 설명해야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즉 (24c-d)가 틀렸기 때문에 *There*-insertion 결과 나타나는 (23c-d)도 당연히 틀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Milsark은 이러한 제약을 특히 술부제약(predicate restriction)이라고 부르고 술부를 state-descriptive 술부(SD술부)와 property술부(P술부)로 나눠 SD술부는 개체의 근본적 변화없이 바뀔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내고 P술부는 개체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There*-insertion을 허용하는 술부는 SD술부뿐이고 P술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23c-d)의 비문법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술부제약은 *there* 구문에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 (25) a. ?People tall live in the house.  
 b. ?Three pigs stupid ran faster than the tiger.

따라서 술부제약은 *there* 구문에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므로 이것은 *there* 구문에서 다뤄져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보다 전반적인 포괄적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겠다.

P술부와 SD술부로 나눠 술부제약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P술부와 SD술부의 구분이 모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개체에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 구분이 달라진다는 약점이 있다. 더구나 Milsark이 말하는 P술부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there* 구문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26) a. \*There are people tall.  
 b. There are people tall enough to play basketball.  
 c. \*There are many people crazy.  
 d. There are many people crazier than Jack.  
 e. \*There are many books heavy.  
 f. There are many books heavy today.

*tall*, *crazy*, *heavy*는 모두 Milsark의 P술부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체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술부이나 (26b)와 (26d)에서처럼 그 상황에 특정한 사실을 나타내거나, (26f)에서처럼 ‘책’의 무게가 날마다 변하는 담화세계에서는 무게가 책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적절한 문장이 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술부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술부가 꾸며주는 전체 복합명사구(complex NP)가 담화맥락상 신정보자격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즉, 복합명사구 *people tall*, *many people crazy*와 *many books heavy*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신정보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나 *people tall enough to play basketball*, *many people crazier*

*than Jack*과 전술한 특정한 상황에서의 *many books heavy*는 신정보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sup>16)</sup> 결론적으로, *there* 구문은 청자에게 신정보자격을 가진 개체의 도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there*는 그러한 개체의 존재무대로서 의식세계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 4.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들에 대한 제약

*there* 구문에는 *be*동사 이외에도 많은 다른 동사들이 나타나는데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27) a. There blew a wind.
- b. There materialized a mass of extophasm.
- c. Out of nowhere there appeared a mysterious figure.
- d. There appeared (emerged) ship after ship.
- (28) a. ?There dissolved a mass of ectoplasm.
- b. ?There burned a flag.
- c. ?There subsided a wind.
- d. \*There disappeared (went down) ship after ship.

Bolinger (1977)와 Quirk, et al. (1985)은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동사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존재’나 ‘존재의 시작’과 관련된 동사들이다. 박승윤(1986)은 *there* 구문을 ‘존재의 주장’이라고 서술했는데, 결국 *there* 구문의 존재의 의미는 *be*동사나<sup>17)</sup> 존재와 연관된 다른 동사들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왜 ‘존재’나 ‘존재의 시작’을 뜻하는 동사들만이 *there*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there* 구문이 신정보자격을 가진 개체의 도입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신정보자격을 가진 개체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청자의 의식전면에 새로운 개체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나 ‘존재의 시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그러한 역할과 부합되지만 그 외의 동사들(예를 들어, *dissolve*, *disappear*, *burn*, *subside*, ...)은 청자의 의식세계에서 개체의 현저함(salience)이 점차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므로 *there* 구문의 역할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Kimball (1973)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동사에 대한 제약도 화용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함을 증명한다.

- (29) a. There exited a squirrel.
- b. There sank a green monster into the lagoon.

16) 이러한 설명은 신정보자격의 명확한 개념규정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주 15)에서 언급한 것 이상의 명확한 규정은 제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17) *there* 구문의 *be*동사는 tense-carrier로서의 계사(copular)가 아니고 존재를 나타내는 본동사이다. 그러므로 *be*동사를 계사로 보는 Williams (1984)를 위시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위의 예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문장인데 이는 *exit, sink*가 존재의 사라짐을 나타내는 동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담화자가 새장 밖에 있거나((29a)의 경우), 개펄 속에 있을 때((29b)의 경우)는 적절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다람쥐’나 ‘녹색괴물’이 오히려 담화자에게 가까이 오는 경우이므로 ‘존재’가 좀 더 부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there* 구문의 통사적 분석에 있어서의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there* 구문을 통사적으로 어떻게 도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언급하지 않고 *there* 구문의 의미·기능적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그 이유는 TIA나 TDA가 모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분석을 제시할 수 없었던 탓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는 *there* 구문에서 의미특성상 *there*의 역할이 인정되므로 *There-insertion*에 의한 분석보다는 처음부터 D-구조에 *there*를 상정하는 TDA가 타당한 것 같다.

현대언어학의 통사론 분야에서 가장 짜임새 있고 대표적 이론은 Chomsky가 주도하는 지배결속이론(government-binding theory)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므로 이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TIA의 가장 큰 문제점을 살펴 보자.<sup>18)</sup> Chomsky (1981)는 *there* 구문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다룬다.

- (30) a. [NP three men from England] [VP arrived last night]
- b. [NP t] [VP [VP arrived last night] [NP three men from England]]
- c. [NP there] [VP [VP arrived last night] [NP three men from England]]

(30c)의 D-구조는 (30a)인데 명사구 이동규칙(NP-movement rule)에 의해 명사구가 동사구 다음으로 이동되고 남은 자리에 *there*가 주어의 역할을 위해 삽입된다는 것이다. 이 때 *there*의 삽입에는 아무런 제약도 가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there*는 공법주(empty category)자리에만 삽입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다른 어휘법주(lexical category)자리에 삽입되면 *there*의 삽입 결과로 없어진 어휘법주로 인해 복원가능성조건(recoverability condition)이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도 *there*가, 명사구가 D-구조에 있었던 자리에 삽입되므로 *there*가 이동된 명사구의 통사적 자질을 이어받아 동사와 이동된 명사구와의 일치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19)</sup> 다음 예는 동사가 뒤의 명사구와 수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1) a. There seems to be a typewriter.
- b. There seem to be typewriters.

그러나 TIA는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즉 지배결속이론에서는 이동규칙의 적용 결과 남겨진 흔적(trace)은 그것의 선행사(antecedent)에 의해 결속(bound)되어야 함에도

18) TIA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Kim (1985)과 박승윤(1986) 참조.

19) *there* 구문에서 동사와 동사 다음의 명사구와의 수의 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Schreiber (1978)와 Kim (1985) 참조.

불구하고 (30b)에서는 오히려 흔적이 선행사를 결속하는 모순이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이다. 바로 이 이유로 Chomsky (1986)는 *there*를 D-구조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동사뒤의 명사구에 격(Case)을 줄 수 있도록 D-S Linking 규칙을 설정하여 *there*와 동사뒤의 명사구가 하나의 연쇄(Chain)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Rothstein (1983)과 Williams (1984)의 분석도 다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이나 본 논문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여러 면에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there* 구문에서 *there*의 역할은 신정보자격을 가진 개체의 존재무대라고 생각할 때 왜 *there*가 화제(topic)가 나타나는 보문자(complementizer) 위치가 아니라 주어자리에 나타나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32)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건의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들은 주어 앞에 위치한다.(즉 이러한 부사구들은 뒤에 서술되는 사건의 시간·공간적 배경의 무대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 (32) a. *On a few islands* you have to collect them yourselves...
- b. *In all other places*, we make bookings...
- c. *Late that afternoon* she received a reply paid telegram.
- d. *An hour later* a pleasant-looking middle-aged woman arrived and took charge.

(32)의 예들을 고려해 볼 때 *there*가 주어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어떤 화용론적, 기능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찾아야 하는데 통사적 분석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그것은 Chomsky (1986)의 분석대로 *there*가 INFL(inflexion)로부터 받게 되는 주격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D-S Linking은 그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동사뒤의 명사구에 주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고대영어는 격이 구조상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명사뒤에 붙는 격어미(Case-ending)에 의해 표시되었다. 그러므로 *there* 구문에서 동사뒤의 명사구가 격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현대영어에서는 격이 구조상으로 결정되다보니<sup>20)</sup> 자동사 뒤의 명사구는 격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주어자리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INFL이 주는 주격을 받을 수 있도록 주어자리가 공법주로 남아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there*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가정이다. 결국 *there*가 주어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은 순전히 동사뒤의 명사구에 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통사적 설명이 타당한 것 같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 *there* 구문에 대한 TDA는 보다 정당화될 수 있는데<sup>21)</sup> Chomsky (1986)의 분석 방법과 본 논문의 분석과의 차이는 Chomsky는 *there*를 D-구조에서

20) Chomsky (1981)의 분석에 의하면 모든 명사구는 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격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에는 격여과(Case-filter)에 의해 제거된다. 격배당은 구조적으로 결정되는데,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핵(head)이 자신의 보충어(complement)에 격을 부여한다.

(i) The head c-commands the complement.

(ii) The complement is adjacent to the head.

즉, 동사구의 핵은 동사이므로 동사가 인접한 명사구에 목적격을 부여하고 문장의 핵은 INFL로 간주되므로 INFL이 주어에 주격을 부여한다.

21) 역사적 연구를 통해 고대영어에서 *there*가 주어자리가 아니고 보문자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러한 가정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부터 상정했지만 그것을 의미없는, 오로지 격을 받기 위한 표지로 생각했으나 본 논문은 *there*를 ‘의식세계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there* 구문을 다루는 통사이론으로는 TDA를 택해야 하겠지만 완전한 통사이론의 태두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되어야 하는지(예를 들어, 격이론, 의미역이론(theta-theory), 주술 관계(predication), 일치(agreement) 등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는 보다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 6. 맷 음 말

본 논문은 *there* 구문에 나타나는 여러 제약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이 제약들의 연관성을 살펴보려 하였다. 연구결과 존재의 *there*는 ‘담화자의 의식세계의 한 부분’을 나타내므로 장소의 *there*와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밝혀졌고 왜 *there*만이 존재구문의 주어로서 나타나 Breivik이 주장하는 영상효과를 가지는지도 이러한 *there*의 의미와 연관된 것임이 밝혀졌다. 또한 *there* 구문의 명사구에 대한 제약(예를 들면, 한정제약, 보편제약 등)도 ‘신정보자격을 가진 개체’이어야 한다는 제약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되었으며, *there* 구문의 동사에 대한 제약도 *there* 구문이 신정보자격을 가진 개체의 도입에 사용된다는 것과 연관해 설명되었다.

*there* 구문에 대한 대부분의 이전 분석들은 단순히 문장내의 관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분석이 되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there* 구문의 여러 특성을 설명하는 데 화용론적 접근방식을 주장한 Kimball (1973), Breivik (1981, 1983), 박승윤(1986)의 분석은 특기할 만하다. *there*가 동사나 명사구에 가하는 제약들은 일종의 화용론적 원칙(즉, *there* 구문은 청자에게 신정보자격을 가진 개체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데 사용된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Bolinger (1977)나 Breivik (1981, 1983)의 말인 “...*there*-sentences are presentative constructions.”와도 일치한다. *there* 구문이 생성된 것은 언어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보전달의 한 방법으로서이고 이것은 언어의 기능적인 면이 언어에 영향을 미친 한 가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there*가 주어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영어의 기본적 통사구조(예를 들면, 지배결속이론의 X-schema)는 변화하지 않고 그 안으로 *there* 구문이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there* 구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밖에 본 논문은 신정보자격의 보다 엄밀한 개념규정과 통사이론 내에서의 구체적인 통사적 분석을 속제로 남겨 놓고 있다.

## References

- 박승윤(1986), “*there* 구문의 통사와 의미,” 『語學研究』 22. pp. 1-17.
-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Longman, London.
- Breivik, L.E. (1981), “On the Interpretation of Existential *there*,” *Language* 57. pp. 1-25.
- Breivik, L.E. (1983), “On the Use and Non-use of Existential *there*,” *Language* 61. pp. 353-68.
- Brown, G. and G. Yul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Subject and Topic*, ed. by Charles, N.L. pp. 27-55.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s and Use*, MIT Press, Cambridge, Mass.
- Jenkins, L. (1972), *Modality in English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Press, Cambridge, Mass.
- Kim, Y.S. (1985), "D-Structure Analysis of *there*-sentences in English," Unpublished Paper.
- Kimball, J.P. (1973), "The Grammar of Existence," *CLS* 9. pp. 262-70.
- Kuno, S. (1971), "The Position of Locatives in Existential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2. pp. 333-78.
- Milsark, G.L. (1977), "Toward an Explanation of Certain Peculiarities of the Existential Construction in English," *Linguistic Analysis* 3. pp. 1-29.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ndo, E. and D.J. Napoli, (1978), "Definites in *there*-sentences," *Language* 54. pp. 300-13.
- Rothstein, S.D. (1983), *The Syntactic Forms of Pred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Schreiber, P.A. (1978), "There-Insertion and Number Agreement," *Linguistic Inquiry* 9. pp. 318-25.
- Stowell, T. (1978), "What Was There Before *There* Was There," *CLS* 14. pp. 458-71.
- Williams, E. (1984), "There-Insertion," *Linguistic Inquiry* 15. pp. 131-53.